

몬트레이 한인 천주교회

303 Hillcrest Ave. Marina, CA93933

설 2023년 1월 22일 (가해) 4호



- ◆ 주임신부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831) 220-1209
- ◆ 사목회장 정영순 크리스티나 (831) 737-0081
- ◆ 미사: 주일 미사 오후 4시, 목요 미사 오후 6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체 강복: 매달 첫째 목요 미사 후 ◆ 봉성체: 매달 셋째주 금요일
- ◆ 레지오 모임: 그리스도의 모후 목요일 4시, 바다의 별 목요일 4시반
- ◆ 성령기도회: 목요 미사 후



2023. 1. 19 꾸리아 평의회 및 성령기도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the Monterey Peninsula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 2 독서 야고 4,13-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입당 451

봉헌 342

성체 성가대

파견 56

† 전례 봉사

복 사	강석우 안드레아, 김병규 스테파노
독 서	정정진 요아킴 (1), 안도희 아네스 (2)
해 설	오윤정 이사벨라
봉 헌	명정옥 마리오셉, 박찬원 마리스텔라

미사 참례자수

주일 미사 (1/15) 40 명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the Monterey Peninsula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15): \$262 감사 헌금: 정정진 \$100

교무금: 강영림 (1~6), 김경화 (1), 김행자 (1), 문종화 (1), 양정숙 (1), 정정진 (1)

사제관 건립 기금: 김경화 \$50, 총액 \$89,334.32

기도해 주세요



김재희 헬렌, 송정옥 프란치스카, 알리샤

라우시, 양화자 소화 데레사

전경순 젬마, 정영숙 레지나

알려드립니다

- 오늘은 설 미사로 봉헌됩니다. 매일미사책 123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미사는 산호세 한인성당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 1월 26일 목요 미사는 없겠습니다.
- 2월 2일 목요 미사 후 성체 현시 및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자비의 예수님께 -성녀 파우스티나-

저의 눈이 자비로워져서
결코 겉모습으로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제 이웃의 영혼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소서.

저의 귀가 자비로워져서
이웃의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과 탄식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저의 혀가 자비로워져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험담을 하지 않고
모든 이를 위로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소서.

저의 손이 자비로워져서
많은 선행을 하게 하여 주소서.

저의 발이 자비로워져서
제가 피곤하고 지쳐도
저의 이웃을 서둘러 돕게 하여 주소서.

저의 마음이 자비로워져서
제가 이웃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묵상 나눔

“하느님은 언제나 3 등”

살면서 여러 일을 겪습니다. 여러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 혼자 끙끙 앓으며 한숨쉬고 걱정하고 누군가를 원망도 하다가 안되면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로 해결이 안되면 그제서야 하느님을 찾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마지막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3 등입니다. 하느님을 내 삶에 1 등으로 모시고 가장 먼저 상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화살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쁠 때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느님께 말을 건네고 또 하느님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힘이 닿을 거라 믿습니다.

